



조선소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류장현

전국민주공속노총조합연맹 조선업공노총조합본부 정책부장

“쉬-익, 타타타타, 팡!”

“쉬-익” 제트기 날아가는 소리와 “타타 타타” 기관총 소리 같은 철관 밀림 소리가 난지 10여 초, 이어 천지를 뒤흔드는 “팡!” 하는 굉음은 수만 평에 이르는 작업장과

인근의 주택가까지 진동시켰다.

작업 중 발생하는 익숙한 소음 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철관이 떨어지면서 ‘쿵, 팡’ 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크레인 이동하면서 내는 경보음도 구급차 소리가 아닐까 확인하는 긴장감 속에 갑자기

"쉬익 타타타타 뽕!" 하고 들리는 소리는 "대형사고 터졌구나"하고 직감했다.

삼에서 안전점검을 하다 말고 소리나는 곳을 향해 뛰기 시작한다.

벌써 배 위에서는 화염과 연기가 배를 감싸고, 치솟는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가리고 있다. 선상에서 작업하던 18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높이 25m 되는 이동식 사다리를 새까맣게 매우며 황급히 배에서 내려 피신하고 있다. 이수라장이다.

몇 명이나 죽었을까? 노동조합 산안부장의 머릿속을 재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이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회사 관리자들과 안전관리실 직원들이 황급히 몰려 들고, 노조 산안위원들과 간부들도 총 출동하여 현장 수습에 나섰다. 한참이 지나서도 119구급대와 구조요원들은 도착할 줄 모른다. 필시 사측이 자체 수습할 생각으로 신고에 늦장을 부렸겠지.

환기팬과 산소호흡기, 로프 등 구조장비가 도착하기도 전에 성급한 마음으로 연기 자욱한 탱크 속으로 뛰어 들었던 안전관리실 직원들이 도리어 연기에 질식해 구조되고 있다.

사고발생 한시간이 지난 뒤에야 소방서와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조대는 환기팬을 설치하지만 직경 1m 넘짓 되는 유조선 탱크 입구 하나만으로는 그 큰 탱크(가로45m×세로28m×높이20m)안의 연기를 다 뽑아 내고 신선한 공기를 빨리 채워 주기에는 아예 역부족이다. 갑판 위 선체를 절단해 불 생각도 해보

지만 탱크 내에 혹시 살아 있을 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위험도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러 지도 저러 지도 못하는 사이 두 시간이 넘어야 연기와 유독가스가 빠지고, 선체는 채 식지 않았지만 그나마 산소호흡기를 들쳐 매고 겨우 탱크 안으로 들어 갔다. 탱크 내부는 칠흙. 원유를 실는 탱크라 탱크 내부에 설치된 조명시설은 없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손에 든 휴대용 방폭등 하나에 의지해 폭 60센티, 거의 직선으로 놓여진 하나밖에 없는 사다리를 통해 20여 미터나 되는 탱크바닥까지 다들듯이 내려갈 수 있다.

방폭등으로 어둠의 저쪽을 비추자 어슴푸레 무엇인가 시야에 들어온다. 조심스레 가까이 갈수록 분명 선체 내 철구조물은 아닌, 질감이 느껴지는 물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한바탕 화염이 휩쓸고 지나 간 자리에 치참히 놓여져 있는 7구의 싸늘한 시신들. 탱크 내부에서 몇명이 작업하고 있었던 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탱크속으로 내려와 7명의 사체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시신을 감판위로 올리는 데에 만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밤 11시, 사고 난지 9시간이 지나서야 현장구조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사망 9명, 1명 중태, 7명 중상. 현대미포조선에서는 불과 4년 전 6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16명의 사상자를 낸 니함머호 가스폭발 사고의 제판이다.

소방대와 구조대가 밝힌 조명등이 선명

20년 된 낡은 유조선을 환히 비추고 있지만 10명의 노동자를 잡아먹은 유령 같은 수리선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다. 95년 부산 한진중공업에서 19명의 하청노동자를 삼켜 버린 한진부산호의 망령은 여전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

1997년 10월 27일 오후 3시 15분 현대미포조선 1만톤에 수리를 위해 접안해 있던 선령 20년의 싱가포르 선적 유조선 아틀란틱 블루호(17만2천1백46톤)에서 선체 개조 작업 중 원유이송관에 남아 있던 기름찌꺼기가 작업 중 발생한 열에 의해 기화, 가스화 하면서 작업중이던 용접불뚝에 인화되어 화염과 함께 화재를 발생시키고 원유송유관을 따라 급속히 전파되면서 수십m 떨어진 송유관까지 연이은 폭발·화재로 하청노동자 7명과 안전관리실 직원 등 9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다행히 살아서 구조된 7명은 울산대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세를 저야했다.

세계1등 조선소?

94년에 41명,
95년에 51명,
96년에 41명,
97년 10월 현재 37명.

해고자 숫자도 아니고 더구나 노동부 장관에게서 모범 산업 노동자로 표창을 받은 노동자 숫자도 아니다.

1년에 조선업종에서 죽어 가는 노동자

숫자이다. 수주량에서 일본과 세계1,2등을 다투고 있으며 불경기 속에서도 조선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작업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조선업종 산재사망률이 세계1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노동부 통계는 이보다 더 적다. 조선업종 내에서 사망한 숫자를 통계 내고 있는 조선분과와는 달리 노동부는 회사별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와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과로사 등으로 산재심사 중인 노동자도 통계에서 빠져 있다. 사실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구조작업 중이던 사측의 안전관리요원도 죽어 가는 판에……

노동부는 9월들어 산재률이 상승 추세를보이자 9월23일 부터 연말까지 '산재감소 100일 집중계획' 이니, '무재해 운동' 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신문지면을 온통 장식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 모두가 허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현대미포조선 폭발사고도 소위 노동부의 '산재감소 100일 집중 계획' 기간 중에 일어났다.

현대미포조선사고도 결국은 소위 재래식 사고의 재탕이다. 과거에 술하게 일어난 조선소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사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가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사고도 결국은 소위 재래식 사고의 재탕이다. 과거에 슬하게 일어난 조선소 중대재해에 대해 노동부와 사측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갖가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가지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미포조선 폭발사고도 송유관 내 잔류가스 검사라든지 작업 중에도 밀폐공간에서 수시로 잔류가스 검사를 실시 하였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인화물을 차단하고 작업중 발화원인을 차단하는 것은 밀폐공간에서의 가스에 의한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상식적인 선조치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다. 회사도 알고있고, 관리자도 알고 있고, 안전관리요원도 알고 있다. 노조의 산업담당자들도 잘 알고 있다. 작업자도 교육을 잘 받았다면(실상은 교육도 잘 안되고 있지만) 알고 있을 법하다.

그러나 사전에 완벽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해만 해도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에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2명이 질식, 사망했으며, 5월 대우조선에서는 작업 중 화재폭발로 1명의 사망자와 9명이 중경상을 입은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있었다.

공사기간은 빠듯하고 '설마' 하다가 일렁뿔렁 그냥 넘어간다. 거기다가 안전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하청노동자를 마구잡이로 작업장에

투입시킨다. 설사 노동조합의 산업보건부간부들과 산업안전보건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하다가 이를 적발하고 시정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 넓은 작업장에 노조산업팀은 산업부장과 차장을 비롯하여 산업위원 대여섯명, 그나마 현대미포조선 노조의 산업관련 상근자는 산업부장 1명뿐이다.

더군다나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에는 입구에 감시자를 배치하고, 만일을 대비해 소화기등 화재진압장비와 산소호흡기, 로프, 사다리 등 구조장비를 비치하게 되어 있지만 사측의 안전관리요원 초차 전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질식해 죽어 가는 관에 사측의 안전조치 마비를 더 들먹여서 무엇하랴.

'생신만능주의'가 죽음의 행진을 부추겨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천민적인 한국자본주의의 발달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정희 정권이 외채를 끌어들이며 근대화 를 시작하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현대적인 조선공업은 기껏 부산의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와는 이렇다 할 조선소가 없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현대중공업

(73년)을 시발로 현대미포조선(75년), 대우조선(78년)이, 그리고 삼성중공업(조선 부문79)까지 가세하면서 일약 세계 1.2위를 다투는 조선공업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산업에서도 그러하듯이 조선소는 생산시설과 안전시설에 투자는 꺼리면서 '더 빨리 더 많이'만 외치며 노동력 착취에만 골몰하는 생산제일주의, 생산만능주의를 유일한 가치로 삼아 왔다. 조선왕국은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 3년의 통계만을 보더라도 1년에 평균 4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조선업종의 중대재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병들고, 죽어 가는 조선소 노동자

그 뿐이 아니다. 조선소의 산업보건분야

의 직업병은 이제 새로운 양상을 띄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2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직업병이 이제 그 축적의 시기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도처에서 갖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십수년 간의 잠복기가 걸린다는 폐암의 일종인 석면으로 인한 악성중피종(소위 석면 전폐), 용접전폐, 파킨슨씨병을 유발하는 용접작업자의 망간중독, 유기용제중독, 근골격계질환 등등. 그러나 소음성난청과 용접전폐 이외의 신종 직업병의 발견은 사업주가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밝혀 낸 것이 아니다.

대우조선에서 정년 퇴직한 김도범씨는 폐암에 걸려 2년동안 그 원인을 추적하던 중 지난해 연말 울산 해성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암의 일종인 석면중피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맞서

생산제일주의, 생산만능주의가 고질적인 조선소 신재의 뿌리이다.



노동자들과 노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병을 직접 증명해 내고 투쟁을 조직화하면, 뒷집지고 있던 노동부와 사측은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아미타불이다.



노조, 그리고 가족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97년 4월 29일 산재판정을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보름 후 병상에서 숨졌다. 그리고 나서야 노동부는 각사업장 석면사용 실태 조사를 하느라 호들갑을 떨었다.

금속연맹은 97년 3월부터 제조업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예산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검진사업을 벌였다. 이상을 호소하는 16개 사업장 136명의 노동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89.5%가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제야 노동부는 노조가 요구할 경우 검진항목에 근골격계 항목을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96년 12월 포항철강공단 용접노동자가 망간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용접작업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돌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망간중독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렇듯 노동자들과 노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업병을 직접 증명해 내고 투쟁을 조직화하면, 뒷집지고 있던 노동부와 사측은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로아미타불이다.

정확한 검진을 두려워하는 사업주

97년 8월 노사합의 하에 진행된 대우조선의 도장작업자들의 유기용제 역학조사 결과는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할 만큼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 주었다. 조사 노동자 679명중 60.8%가 중추신경장애(뇌기증 장애), 말초신경장애, 직업성 피부염(무좀 포함) 등 각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그 동안 일반건강검진이나 특수건강진단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반증하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해마다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산재직업병을 발견하여 직업병유소건자는 치료 내지는 작업배치 전환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는 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직업병의 재발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그러나 노동부가 법으로 정하여 해마다 실시해온 건강검진은 사측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엉터리로 진행되고, 결국 작업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면피용으로 각색되어 온 것이 사실로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에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96년 단협에서 유기용제 작업자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합의해 놓고도

대우조선에서 역학조사결과 많은 문제가 노출되자 현대중공업은 그 동안 은폐되어 온 작업환경문제가 현실로 확인될 것을 우려하여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도장작업부서 노동자들은 이러한 심각성을 일지 감치 깨닫고 이미 95년에 1630회(1일 6시간 노동, 1주일 30시간 노동을 지향한다는 뜻)이라는 대책위를 꾸려 작업환경개선과 직업병 발견을 위해 조직적인 현장활동을 벌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현장작업자와 노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이 많이 발견될까 봐 단협에서 합의된 사안을 지키지 않는 현대중공업 사측은 파인 돈의 노예이미 도대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인가?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인을 제거해 다시는 직업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쾌적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요구이고 인간적인 요구이지만 자본가들은 돈이 많이 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골치 아픈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일까?

설계부터 작업과정의 안전을 고려하는 일본조선소

97년 2월 대우조선 노조 산안부는 사측과 일본조선소 안전보건 견학을 다녀왔다. 일본 조선소를 견학하고 돌아온 노조 간부의 견학기에 의하면 일본 조선소는 공장설립 시 이미 공장지붕을 개폐식으로 하고, 거기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천정폭이 좁아

지는 단단계 골뚝 형태로 만들어 작업장의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흙과 각종 유해물질이 자연통풍 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작업자가 불리 내부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부위를 최대한 줄이고, 고소작업과 위험 작업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에 신경을 쓴다고 한다. 산업안전과 보건문제에 관한 한 은폐, 축소는 물론이고 사측의 비협조는 아예 상상할 수 없다고 한다.

97년 9월 독일 조선소를 견학하고 돌아온 한 노동자는 “조선소가 깨끗하고 소음도 지극히 낮아 조선소가 아니라 전자공장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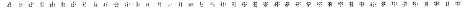
우리나라 조선소의 현실은 어떠한가?

귀마개를 해도 소음은 고막이 찢어질 듯 커덥고,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흙은 제대로 통풍이 되지 않아 온 공장을 가득 매우고, 눈이 따가워 제대로 눈을 못 뜰 정도다. 현장작업자가 이닝 관리직이나 기사들도 공장출입시에는 방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이다.

10m 넘는 고소작업 시에도 용접기, 절단기, 망치, 레바플러, 파워자키 등 혼자서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작업공구를 들고 폭 60cm 수직 사다리를 올라야 하는 작업장의 현실은 오히려 일년에 조선소에서 40명 이상이 죽어 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되어 버렸다.

이러한 한국 천민사본의 착취구조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 인간중심의 생산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자본가들의 혁명적인 발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 자본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그들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생산물도, 이윤도 없다는 것을 알게끔 우리 스스로의 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상의 전환 없이는 현대미포조선과 같은 대형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투쟁 없이는 안전도 없다

93년부터 조선업종 노조 산안부장들은 모여 연대활동을 모색하기 시작하였고, 95년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작업복(가죽으로 된 용접자켓, 도장작업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는 우주복)을 그대로 입고 서울 시내 한복판을 다니면서 조선업종의 산재 보건 문제의 심각성을 선전하기 시작하자, 그제야 언론에서도 죽음의 조선소 등의 주제로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조선업종 노조의 활동과 여론화는 여론의 관심을 유발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내에는 [조선업위기관리팀]이라는 조선업종의 산안보건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조선소의 중대재해문제는 충분히 여론화되고 공론화 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똑같은 재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버린 자본가들이 스스로 알아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부질없

는 짓이다.

단협에 합의까지 해 놓고도 문제가 드러날까 봐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본가들.

그들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생산물도, 이윤도 없다는 것을 알게끔 우리 스스로의 투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고 안전과 보건에 대한 투자가 결국은 자본가들에게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천으로 깨닫게 해줘야 한다.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자본가들에게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혁명적 발상전환을 강제하지 않으면 결코 조선업종의 사망자를 줄일 수 없다.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한다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끊임 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이어져야 할 것이다. ❖